

종합·해설

경실련, 광주 총선 후보들 매니페스토·의정활동계획서 살펴보니

‘가장 일하고 싶은 상임위’ 지경위 12명 최다

의정활동 목표 ‘보편적 복지확대’ 최우선

4·11총선 광주지역 예비후보들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지식경제위원회 활동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목표로 ‘보편적 복지 확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1~3개)에 대해 12명이 지식경제위원회를 선택했으며 뒤를 이어 9명이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희망했다.

6명이 선택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5명)·기획재정부위원회(4명)·국토해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3명)가 뒤를 이었다.

발전(7명), 검찰개혁(5명) 등이 의정활동 목표에 들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심판, 남북통일 추구,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정치개혁 등이 의정활동 목표로 거론됐다.

현역 공천 탈락 이틀도 안돼 “다른 후보지지”
광주 서구의원들 ‘발빠르네’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를 지역구 소속 구의원들이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지 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컷오프를 통과한 특정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박지원 “민주동우회 창당 없을 것”
선관위 ‘후보 지지 식사 제공’ 검찰 고발
민주통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6일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계 전직 의원들의 집단적인 탈당과 창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목표와 순천 등 선관위 소재 전남 10곳에서 4·11 총선에 참여할 정당 및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은 영광군 선관위에서 열린 설명회. (전남도선관위 제공)

광주 동구 시민후보 낸다

추대위 9일까지 공모...시민배심원단 최종 후보 선정
광주 시민단체가 민주통합당에 4·11 총선에서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된 광주 동구에 시민 후보를 추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별과 검찰, 한미 FTA, 환경·복지·여성 등 12개 분야에 대한 개혁완수 역량과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민주 개혁적 견해와 추진능력, 도덕성과 청렴도, 광주정신 계승 노력, 지역사회와의 소통 능력, 아원연대 추진 의지 등이다.

‘광주 동구 불법 선거’ 5명 추가 소환

檢, 대리모집 여부 수사
민주통합당 광주시 동구 선거인단 불법 모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조직인 비상대책추진위원회에 조장을 맡은 5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남실 진보당 시당 대표 “비례대표 후보 출마”

윤남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공동대표는 6일 “지역특성 정치 구조를 해체하겠다”며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봄맞이~ 부동산 재테크 무료특강
강사: 정영수 전남대 경영학박사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김영표 前현대그룹 팀장, 랜스터즈 재테크 강사
삼성홀플러스 동광주지점 평생교육스쿨(2층) 문의전화 062)250-8003~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광주여자대학교(14기) 광주교육대학교(제5기)
문의 062)950-3582-4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문의처 : 010-3625-6984
사 업 명 (주)해주주택전시관 및 사육신축공사
사 업 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 지 면 적 2,411.20㎡(729.39평)